

첨단3지구에 4000억 들여 AI 집적단지

광주시, AI중심도시 육성 어떻게 추진되나

2024년까지 에너지·차 등 주력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산업융합 사업단 설립...마이데이터 기증 범시민 운동도

29일 광주시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의 전략 및 과제에는 AI 클러스터 조성, 인재양성 등 AI 산업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담겼다.

AI 중심도시 광주의 4대 전략의 핵심은 데이터 중심의 AI 클러스터 조성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앞으로 5년간 4000억원을 들여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오는 2024년까지 첨단3지구 4만6200㎡에 데이터센터, 실증동, 창업동 등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도 설립했다.

AI에 데이터 중심의 자원을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인재양성 등 AI 산업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담겼다.

AI에 데이터 중심의 자원을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인재양성 등 AI 산업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담겼다.

AI에 데이터 중심의 자원을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인재양성 등 AI 산업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담겼다.

한 데이터 산업융합원 설립도 추진된다. AI 창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주기 지원으로 AI 기업을 육성한다. 첨단 3지구를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내·외 AI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도 노린다.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AI대학원을 설치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AI 도시 만들기 사업도 추진한다. 생활 밀착형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의료, 에너지, 금융 등) 기증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다. 데이터 기증을 통해 AI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선순환체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가 전략 육성산업이자 핵심 미래먹거리로 AI산업을 택한 이유는 낙

후된 지역 경제의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가 AI산업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광주는 늘 정의로운 도시, 즉 의향으로 불렸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오랜 차별과 소외로 경제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4차산업으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AI를 선점하느냐 여부가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판단에 기반해 지난 2018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신청토록 했을 때 광주는 연구개발 사업인 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지난해 초 예타가 면제되는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다른 지자체들은 관행대로 모두 SOC사업을 신청했지만, 광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지자체 청렴도 평가도 우수

전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반부패 우수기관의 쾌거를 달성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을 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해마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동안 전남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2년부터 2-3등급을 유지해오다 2017·2018년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았고, 2019년에도 2등급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반부패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전남 외 3곳(경기, 부산, 제주)에 불과하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청렴전남 회복 원년의 해'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청렴 취약분야 집중 대책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 노력이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분야별로 보면 총 7개 분야 중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3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수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홈페이지에 공개, 2000만원 이상 공사현장 대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섬 '날씨 정보' 미리 알려 드려요

가고 싶은 섬 14곳·마리나 등 여행 활성화 기상 서비스 시작

전남도는 29일 가고 싶은 섬, 마리나 등 다도해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기상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날씨 정보 기상 서비스는 전라남도과 광주지방기상청이 협업해 '다도해 해양관광산업 지원 융합기상정보 활용서비스 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전남도는 전국 섬의 65%(2165개)로 섬 여행객들로서는 시사각각 변하는 날씨 정

보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시행된 서비스 지역은 '가고 싶은 섬' 14개소를 비롯해 흑산도, 홍도, 거문도 등 방문객이 많은 5개 섬, 여수, 목포 등에 운영 중인 4개 마리나를 대상으로 했다.

기상정보는 6개 분야로 구분해 제공한다. ▲'섬여행지수'는 비, 바람, 무더위 여부 등 섬 여행하기 좋은 날 정보, ▲'바다수영지수'는 즐겁고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이밖에 승선체감지수와 갯벌체험지수, 바다낚시 기상지수, 세일링지수 등 각종 정보를 더 붙여 제공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올해 무안 국제공항 이용객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세웠지만, 새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이 확산하면서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6일 무안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이용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공항 이용객 110만명 목표 '코로나' 차질 빛나

중국 정기노선 잇따라 중단 인바운드 시범공항 MOU 연기

전남도가 '무안 국제공항 이용객 110만명 돌파'를 올해 목표로 내걸었다가 새해 벽두부터 밀려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감염증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인 만큼 드러내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 여행객 감소로 목표(100만명) 달성에 실패했던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안절부절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31일 청주공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바운드 시범

공항 지정 MOU' 체결식이 잠정 연기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것으로, 시범공항 지정에 계기로 무안공항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던 전남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바운드(외국인 방문객) 시범공항은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무안공항을 비롯, 양양·청주공항을 시범공항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며 인바운드 수요를 창출, 지방공항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행사에 항공기 전세기 1편당 최대 500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고 항공사에게도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비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교통 부재하거나 심야시간에 지방공항 셔틀버스

운영하는 등 교통 편의 정책도 추진된다. 모바일소핑 플랫폼을 구축, 온라인 쇼핑 및 기념품가게 등에서 상품 구매 뒤 공항에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공된다.

무안공항의 경우 광주, 목포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각 11회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목포역에서 공항 간 시내 좌석버스도 11차례 운영된다.

전남도는 여기에 더해 저차 노선에 대한 손실금을 지원하면서 항공사의 신규 노선 발굴을 유도하고 동남아·러시아 등으로 노선을 다변화, 인바운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았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실패했던 '연간 이용객 100만명'을 넘어서 '서남권 대표 국제공항'에 걸맞는 역대 최대 이용객

실적인 '11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변수로 작용했다. 새해 초부터 정기 노선인 중국행 항공편이 잇따라 중단된데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외신까지 나오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도 일본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일본 여행객 감소로 연간 이용객 89만 5410명에 머무르며 목표(100만명) 달성에 실패했던 만큼 공항 활성화 및 관광 정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지난해 중국 및 아시아 노선 여객 증가로 국제선 이용객이 68만2243명에 이르는 등 전남도에 견주110.2% 성장세를 기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개방형 직위 감사위원장 공개 모집

광주시는 29일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직급은 지방부이사관(3급)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개방형 3호)으로 근무 기간은 2년, 총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7일이다.

지원자는 1차 서류전형(2월 14일), 2차 서류 심사·면접 시험(2월 21일) 등을 거친다.

선발시험위원회에서 2~3명 후보를 선발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신일섭 복지재단 대표 사표 수리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사의를 밝힌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사표를 29일 수리했다.

후임 대표 임명은 오는 7월 1일 개원 예정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 검토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밝혔다.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광주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장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거나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대표이사 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복지재단에서 불거진 재단 고위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 23일 재단 이사장인 이시장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